

그리스도인 07.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Christian 07. How did you become a Christian?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아야 한다. 죄(sin)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런 죄 가운데 사는 자는 죄인(sinner)이며 죄인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마다 먼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repent)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believe) 받아들여지게 된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발견되는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 받아들여지기 전, 그 스스로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눅 15:18)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그는 그 상태 속에서 죽어간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는데, 이는 그가 회개했음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있어서 유일한 길이다(요 14:6).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곧 그분을 믿고 받아들인 자(요 1:12)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며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양한 경우로 가능하다.

-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는 감리교를 시작한 사람이다. 그는 24세에 영국 성공회 목사로 안수 받아 미 대륙으로 가서 선교활동을 했는데, 귀국 후 35세 때 영국 런던의 울더스게 잇이라는 거리의 한 집에서 있었던 모라비안 모임에 참석했다가 회심하게 되었다. 그가 변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었다. 그는 목사였지만 구원받지 못한 채 사역을 했었다.

- 찰스 스펄전(Charles Haddon Spurgeon, 1834-1892)은 침례교 목사다. 그는 16세의 어느 날, 눈이 아주 많이 와서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지 못한 날, 평범한 성도가 대신 설교하는데 예배당에 앉아 그의 설교를 듣다가 회심하게 되었다. 그를 구원으로 이끈 그날의 메시지는 이사야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들아, 나를 바라보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라는 말씀이었다.

- 디엘 무디(Dwight Lyman Moody, 1837-1899)는 침례교 평신도 설교자이다. 그는 지역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 입회 준비를 하다가 회심하게 되었다.

- 조지 뮐러(George Müller, 1805-1898)는 기독교 복음주의자이자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이다. 신학교 시절, 친구들의 기도모임에서 그들이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이 하나님을 매우 실제적으로 높이지 못한 죄인임을 깨닫고 숙소로 돌아와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회심하게 되었다.

- 루 웰레스(Lewis Wallace, 1827-1905)는 어려서부터 감리교도로 자랐으나 신앙심이 깊지 않았다. 무신론자인 잉거솔을 만나 그와 대화하면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입장을 더 분명히 하려고 성경을 읽던 중,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다. 그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벤허(Ben-Hur:)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쓴 사람이다.

- 사울(Paul)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익숙한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다. 본래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구원받게 되었다.

- 디모데(Timothy)는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라나 성경을 알았다. 특히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의 영향으로 성경을 알았다(딤후 1:5, 3:15). 그가 정확하게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는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청년의 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은 신실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행 16:2). 주의해야 할 점은 그가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자라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란 점이다. 정확히 그 시기를 꼭 짚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어린 시절 어느 때,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요 주님이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시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는 구원받았다.

- 에베소 사람들(Ephesians, 행 18:1-6)은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전하므로 그들이 그분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 빌립보 감옥의 간수(the keeper of Philippi prison, 행 16:25-34)는 세상적인 배경에서 하나님을 일체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다. 죄수들을 잃고 불명예스럽게 될 수도 있는 절망적인 환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다.

- 루디아(Lydia, 행 16:14-15)는 아무런 극적인 요소가 없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다가 조용히 맘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 오늘날 하나님을 찾아 헤매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

- 고넬료(Cornelius, 행 10장)도 비슷한 경우이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던 중, 베드로라는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함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믿기 전에 당신은 어떠했는지, 당신이 믿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가? 또 당신이 믿은 뒤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구원받을 때의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나 모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다른 어떤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하더라.(행 4:12)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더라.(행 16:31)

※ 사용된 성경 텍스트는 KJV 영어성경에서 번역한 근본역이다.